



도 답 도 답



2019년 6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저항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 ?

성폭력 피해를 당할 때 저항하는 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는 통념 때문에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 또는 동물이 공포, 두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몸이 굳어 꼼짝하지도 못하는 경우처럼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저항능력이 마비되는 '긴장성 부동화(Tonic Immobility: TI)'**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 연구소의 안나 뢰러 박사팀은 스톡홀름의 '강간 피해 응급 클리닉'에서 치료 받은 여성 298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70%가 성폭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TI를 겪었고 전체의 48%는 '극심한 정도'였다**는 결과를 학술지 '스칸디나비아 산부인과학 저널'(AOGS)에 게재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왜 가만히 있었어?”라는 물음은 공포와 무력감을 경험한 피해자에게 ‘내가 저항하지 않아서 피해를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을 갖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 피해자 이해에 대한 첫 걸음입니다.**

◆ 왜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해 ?

‘성폭력 피해자라면 아마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고정관념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성폭력은 진단명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그 경험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 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부인’ (사건 발생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과

‘회피’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부인’, ‘회피’ 방어기제는 주의를 돌리고자 몰두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거나 음주, 다른 이성 교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라는 생각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관념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 폭력 예방과 관점의 변화



《 생각 나누기 》

효심이 지극하고 마음이 착하기로 소문난 나무꾼. 하지만 선녀의 입장에서 나무꾼을 바라볼 때 과연 착한 사람일까요?

나무꾼은 장가를 가기 위해 선녀의 날개 옷을 훔치고 선녀를 집으로 데려갔으며 혹시라도 선녀가 날개 옷을 찾더라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착하게 살았고 효성이 지극해서 선녀를 아내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녀의 입장에서 나무꾼을 바라보면, 자기 옷을 훔친 절도범이고 집으로 끌고 간 약취·유인범이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강간범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